

가족진단검사 제작을 위한 신뢰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 신경정신과학교실
박 영 숙

= Abstract =

A Study on the Item Analysis and the Reliability Evaluation of the Family Screening Test in Korea

Young Sook Park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hwa Womans University

Objects : This study aimed at an examination of the item analysis and reliability of the Family screening test which was developed to assess the family's characteristics and the degree of family psychopathology from March 15 to May 30 1996.

Methods : The subjects were 467 housewives who were sampled by the random sampling method in Seoul. This family screening test is composed of 11 subscales, the self-report measure, and a 5-point scale.

Results :

1) 98 items were selected by the item analysis and reliability evaluation among the original 199 items which were categorized 11 subscales.

2)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Cronbach's alpha and the speraman-Brown split-half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more than 0.70 for all scales except 8, 9, 10, 11 scales.

3) The reliability coefficients of the Cronbach's alpha and the split-half correlation for 8, 9, 10, 11 scales were less than 0.70 which were evaluated to have the insufficient reliability.

4) It was found that the items of 1 scale (No 5, 7, 9, 14), 3 scale (No 1, 2, 3, 4, 8) and 8 scale (No 2), 9 scale (No 4, 5), 11 scale (No 3, 6) need to change for the sufficient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oefficients.

Conclusions : It was suggested that 8, 9, 10, 11 scales need to the more items for increasing the reliability coefficients through the complementary work.

KEY WORDS : Family screening test · Reliability · Item analysis.

서 론

가족이란 상호작용하는 인격체들의 통일체이며¹⁾, 개인의 인격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²⁾, 가족들의 상호

작용과정에서 개인의 자아정체감이 형성된다³⁾는 가족에 관한 정의들은 가족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다. 가족이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력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가 덜 안정되어 있을수록, 개인의 자아강도가 보다 약

할수록 더 클 것으로 예견될 수 있다.

임상장면에서 가족에 대한 평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진단과정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의 정신 건강이나 정신병리에 가족요인이 결정요인으로 또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4,8)}. 이외에도 가족평가가 임상장면에서 주요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정신장애 치료과정에서 가족은 주요한 치료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정신장애의 예후에 있어서 가족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⁹⁻¹¹⁾. 따라서 정신장애자의 발병, 치료, 예후과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을 이해하고 가족요인을 치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족검사를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 가족들은 가족주의를 바탕으로하여 한국인 특유의 사회적 성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¹²⁻¹⁷⁾. 즉 한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격은 한국인의 가족관계 특성이나 가족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들을 보면 한국 가족은 그 구조적 겉모습은 핵가족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실제 가족생활에서는 가족주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직계 부계가족의 원리가 고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가족은 급속하게 소형화되고 핵가족화되어 외형적으로는 변화되고 있지만 실제 내용면에서는 전통적 가족주의 정신이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가족주의가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에 결정적으로 주요하며 가족에 대한 애착심, 일체감,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는 독특성은 정신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인들의 독특한 가족관계 양상은 성격형성과 정신병리 형성과정에 있어서 가족요인이 매우 특이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인의 독특한 가족관계 양상을 평가할 수 있는 고유한 가족평가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가족연구들을 검토해보면 한국 가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족검사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내에서 개발된 평가도구가 아닌 외국에서 제작된 가족검사들을 사용하고 있다^{18,20)}.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서 한국형 가족검사의 부재에 따른 문제

점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앞서 인용된 한국 가족의 독특성에 관한 지적들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 가족을 평가하는 평가도구가 없는 한국 가족의 독특한 현상과 가족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렵고 가족이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평가하는데도 문제가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적절한 한국 가족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가족검사를 개발하는 기초과정으로서 문항 개발과 문항 분석, 검사의 신뢰도 검증을 시도해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의 독특한 요인을 평가하고 각 가족의 정신병리의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가족검사를 제작해나가는 과정으로서 가족진단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가족검사를 표준화하기 앞서 이러한 신뢰도 검증단계를 밟음으로써 보다 신뢰롭고 타당성있는 검사를 제작하는데 안전을 기할 수 있다는 점과 궁극적으로는 가족진단검사를 제작함으로써 정상가족이나 정신장애자가족이 지니고 있는 가족요인이나 문제점을 이해함으로써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장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 앞서 예비연구로서 1995년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1차, 3월 20일부터 4월6일까지 2차 예비 연구를 거쳤고 1차 대상자는 28명, 2차 대상자는 64명이었다. 본 연구는 3차 연구로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주부만을 응답 대상으로 제한하였고 467명의 주부가 가족진단검사를 완성하였다. 조사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대상자 표집과정을 보면 무작위방식으로 표집하였고, 적절한 연령 분포 표를 작성한 후 연령이 고르게 표집되도록 하였다. 피검사자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민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특수 사회계층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학교나 특수 지역사회는 배제하였으며 강남과 강북 지역을 1:1 정도로 배분하였다. 조사방식은 학생들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검사지를 보낸 후 검사지를 회수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조사자가 본연구의 목적 및 검사 방법을 기록한 용지를 가지고 교사를 방문하여 교사에게 설명한 후 조사자가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제시

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학교장면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조사를 시행한 경우는 조사자가 검사지를 응답자에게 제시한 후 그 자리에서 작성하거나 아니면 이차 방문하여 회수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진단검사는 가족의 독특한 가족요인을 평가하고 가족의 정신병리 정도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자 및 사회학자, 정신과전문의로 구성된 검사 제작진들이 예비검사 및 본 검사를 거치면서 수정한 검사가 사용되었다. 검사 문항 수정 및 선정과정을 보면 1차 예비검사에서는 각 문항의 평균치, 표준편차, 각 문항간 상관계수, 신뢰도 알파계수를 산출하면서 문항을 검증하였고 2차 예비검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를 추가하면서 문항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차 예비검사에서 수집되었던 199개 문항 가운데 2차 예비검사 문항으로 196개 문항이 선정되었고 2차 분석 결과 98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본 가족검사의 척도에 대한 이름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다른 연구를 통하여 요인분석 결과를 근거로 각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척도별로 이름을 부치지 않고 단순하게 제 1척도, 제 2척도와 같은 방식으로 각 척도를 번호로 기술하게 될 것이다. 본 가족진단검사는 피검사자가 직접 질문에 응답하는 자가-평가방식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부터 5점 매우 그렇다사이에서 응답자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채점은 각 척도별 총점수를 합산하여 계산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의 통계 분석 방법을 보면 가족진단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려는 연구 목적에 따라 각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α 계수와 반분신뢰도 계수를 구하였고,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자기상관값(self-correlation)을 교정한 문항과 전체 척도값 사이의 상관계수(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를 근거로 문항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표로 제시되고 있는 11개 척도의 구성 내용은 부록에 핵심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결 과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배경을 보면 평균 연령은 40.11세(6.11)였고 연령분포를 보면 30대 47.5%, 40대 42.1%, 50대이상 10.4%였다. 교육수준은 국졸 0.2%,

중졸 11.3%, 고졸 41.7%, 대졸 43.9%였으며 취업주부는 조사대상자의 26.6%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 가족의 생활수준은 상 34.8%, 중 63.7%, 하 10.7%였고, 결혼형태는 중매형 45.3%, 연애형 35.8%, 절충형 10.9%였다.

Table 1에서는 11개 척도별로 Cronbach α 계수와 반분신뢰도 계수가 제시되고 있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개 척도 가운데 척도 1에서 척도 7까지는 α 계수가 .86~.74사이에 있으며, 반분신뢰도는 .82~.71 범위에 있어서 매우 안정된 신뢰도 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척도 8은 α 계수 .69, 반분신뢰도 .63으로 양호한 경향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고 척도 9는 α 계수 .61, 반분신뢰도 .43 범위에서 낮은 신뢰도 계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척도 10과 척도 11은 더욱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척도 1부터 척도 7까지는 매우 양호한 수준에서 신뢰도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데 비해 척도 8번부터 11번까지는 α 계수, 반분신뢰도계수는 낮은 편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척도 8부터 11까지는 문항 내용이나 문항 수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다음 Table 2부터 Table 12까지는 각 문항들의 평균치, 표준편차 및 문항 적격도가 제시되고 있다. 문항 적격도는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자기 상관값(self-correlation)을 교정한 문항과 전체 척도값 사이의 상관계수(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에 의해 산출되었다.

Table 2에서 보면 척도 1에 속하는 15개 문항들의 평균치는 5, 7, 9, 14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2.90~2.0사이에 속해 있고, 표준편차는 1.25~.72 범위에서 지나치게

Table 1. 각 척도별 α 계수와 반분신뢰도 계수

| | α 계수 | 반분신뢰도 계수 |
|-------|-------------|----------|
| 척도 1 | .8631 | .8200 |
| 척도 2 | .7793 | .7532 |
| 척도 3 | .8486 | .8296 |
| 척도 4 | .8014 | .7926 |
| 척도 5 | .8083 | .7173 |
| 척도 6 | .7448 | .7256 |
| 척도 7 | .7785 | .8963 |
| 척도 8 | .6957 | .6390 |
| 척도 9 | .6146 | .4388 |
| 척도 10 | .5924 | .5462 |
| 척도 11 | .5426 | .5416 |

편차가 크거나 작지 않았다. 문항 적격도는 최고 .78에서 최하 .34까지로 양호한 수준에 있다. Table 3에 척도 2의 평균치, 표준편차, 문항적격도가 제시되고 있다.

Table 3에서 보던 척도 2에 속하는 14개 문항들의 평균은 4.61~3.22사이에 속해있고, 표준편차는 1.09~.67범위에서 비교적 지나치게 편차가 크거나 작지 않다. 문항 적격도는 최고 .68에서 최하 .42까지로 양호한 수준이다. Table 4에 척도 3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 적격도가 제시된다.

Table 4에서 척도 3에 속하는 10개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1, 2, 3, 4, 8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Table 2. 척도 1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적격도

| 문 항 | M | SD | 문항적격도 |
|------|------|------|-------|
| 1- 1 | 2.27 | 1.02 | .62 |
| 1- 2 | 2.46 | 1.04 | .78 |
| 1- 3 | 2.38 | 1.01 | .76 |
| 1- 4 | 2.72 | 1.25 | .67 |
| 1- 5 | 1.92 | 1.02 | .74 |
| 1- 6 | 2.30 | 1.00 | .54 |
| 1- 7 | 1.39 | .75 | .45 |
| 1- 8 | 2.90 | 1.09 | .45 |
| 1- 9 | 1.52 | .83 | .57 |
| 1-10 | 2.68 | .98 | .47 |
| 1-11 | 2.25 | 1.00 | .64 |
| 1-12 | 2.07 | .83 | .66 |
| 1-13 | 2.10 | 1.14 | .59 |
| 1-14 | 1.67 | .72 | .51 |
| 1-15 | 2.43 | .98 | .34 |

Table 3. 척도 2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적격도

| 문 항 | M | SD | 문항적격도 |
|------|------|------|-------|
| 2- 1 | 3.77 | .96 | .67 |
| 2- 1 | 3.22 | 1.06 | .48 |
| 2- 3 | 3.67 | .93 | .47 |
| 2- 4 | 3.84 | .87 | .68 |
| 2- 5 | 3.98 | .88 | .45 |
| 2- 6 | 3.90 | .82 | .57 |
| 2- 7 | 3.94 | .84 | .57 |
| 2- 8 | 4.61 | .67 | .44 |
| 2- 9 | 3.85 | 1.09 | .44 |
| 2-10 | 3.84 | .99 | .42 |
| 2-11 | 4.18 | .74 | .58 |
| 2-12 | 3.44 | .84 | .50 |
| 2-13 | 3.66 | .86 | .60 |
| 2-14 | 3.99 | .86 | .60 |

평균 3.01~2.0사이에 속해 있고, 표준편차는 1.22~.85범위에서 지나치게 편차의 폭이 크거나 작지 않는 범위이다. 문항 적격도는 최고 .74에서 최하 .52까지이며, 문항 적격도는 양호한 수준에 있다. Table 5에는 척도 4 문항 평균치, 표준편차, 문항적격도가 제시되고 있다.

Table 5에서 보던 척도 4에 속하는 8개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평균 4.28~3.50사이에 속해있고, 표준편차는 1.87~.82 범위에서 비교적 지나치게 편차가 크거나 작지 않는 범위에 있다. 문항 적격도는 최고 .77에서 최하 .57까지이며, 전반적으로 볼 때 문항 적격도는 매우 양호한 수준에 있다. Table 6에는 척도 5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적격도가 제시되고 있다.

Table 4. 척도 3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적격도

| 문 항 | M | SD | 문항적격도 |
|------|------|------|-------|
| 3- 1 | 1.74 | .85 | .71 |
| 3- 2 | 1.93 | 1.07 | .74 |
| 3- 3 | 1.83 | .90 | .71 |
| 3- 4 | 1.92 | 1.00 | .72 |
| 3- 5 | 2.08 | 1.00 | .64 |
| 3- 6 | 2.28 | 1.22 | .69 |
| 3- 7 | 3.01 | 1.20 | .63 |
| 3- 8 | 1.85 | .95 | .63 |
| 3- 9 | 2.64 | 1.03 | .59 |
| 3-10 | 2.11 | 1.14 | .52 |

Table 5. 척도 4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적격도

| 문 항 | M | SD | 문항적격도 |
|------|------|------|-------|
| 4- 1 | 3.50 | 1.08 | .77 |
| 4- 2 | 3.88 | .97 | .66 |
| 4- 3 | 3.96 | .92 | .63 |
| 4- 4 | 3.69 | 1.11 | .56 |
| 4- 5 | 3.81 | .82 | .64 |
| 4- 6 | 3.55 | 1.07 | .70 |
| 4- 7 | 4.28 | 1.87 | .66 |
| 4- 8 | 4.13 | .87 | .57 |

Table 6. 척도 5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적격도

| 문 항 | M | SD | 문항적격도 |
|------|------|------|-------|
| 5- 1 | 3.57 | .92 | .81 |
| 5- 2 | 3.47 | 1.00 | .72 |
| 5- 3 | 3.46 | 1.03 | .75 |
| 5- 4 | 4.12 | .90 | .66 |
| 5- 5 | 3.86 | .95 | .63 |
| 5- 6 | 2.34 | 1.00 | .57 |
| 5- 7 | 2.62 | 1.04 | .64 |

Table 6에서 척도 5에 속하는 7개 문항들의 평균은 4.12~2.34, 표준편차는 1.04~.90사이로 지나치게 편차가 크거나 작지 않는 범위에 있다. 문항 적격도는 최고 .81에서 최하 .57까지이며 문항 적격도 수준은 양호하였다. Table 7에 척도 6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적격도가 제시된다.

Table 7에서 척도 6의 10개 문항들은 평균 4.20~2.92, 표준편차 1.15~.68사이로서 지나치게 편차가 크거나 작지 않다. 문항 적격도는 최고 .65에서 최하 .41까지로 양호한 수준이다. Table 8에는 척도 7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적격도가 제시되고 있다.

Table 8에서 척도 7에 속하는 4개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평균은 3.38~2.77, 표준편차는 1.04~.97이며 문항적격도는 .81~.73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척도 7에 속하는 4개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평균점수가 중간 범위에 있고 표준편차는 지나치게 편차가 크거나 작지 않고 고른 편이며, 문항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문항 적격도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Table 9에는 척도 8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적격도가 제시되고 있다.

Table 9에서 척도 8에 속하는 7개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2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평균은 3.24~2.02 범위이며, 표준편차는 1.45~1.18 범위에 있다. 문항 적격도는 최고 .72에서 최하 .48까지이다. 2번 문항이

Table 7. 척도 6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적격도

| 문항 6 | M | SD | 문항적격도 |
|------|------|------|-------|
| 6-1 | 2.55 | .99 | .63 |
| 6-2 | 3.40 | 1.01 | .65 |
| 6-3 | 3.19 | .96 | .56 |
| 6-4 | 3.69 | .85 | .61 |
| 6-5 | 2.93 | 1.15 | .48 |
| 6-6 | 3.65 | .98 | .56 |
| 6-7 | 3.91 | .73 | .50 |
| 6-8 | 2.92 | 1.06 | .58 |
| 6-9 | 4.20 | .68 | .41 |
| 6-10 | 2.89 | 1.07 | .55 |

Table 8. 척도 7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적격도

| 문항 | M | SD | 문항적격도 |
|-----|------|------|-------|
| 7-1 | 2.80 | .99 | .81 |
| 7-2 | 3.38 | .97 | .76 |
| 7-3 | 2.77 | 1.03 | .80 |
| 7-4 | 3.33 | 1.04 | .73 |

평균치와 표준편차가 가장 낮음이 발견되므로 문항 적격도는 .65 범위이지만 이 문항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척도 8에 속하는 7개 문항들의 문항 적격도는 양호하였다. Table 10에는 척도 9에 속하는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적격도가 제시되고 있다.

Table 10에서 척도 9에 속하는 5개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4번, 5번 문항을 제외한 4개 문항들의 평균은 3.11~2.33 수준으로 비교적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범위에 있으며, 표준편차는 1.06~.94 사이에 있어서 지나치게 편차가 크거나 작지 않는 범위에 있다고 보여진다. 4, 5번 문항은 평균점수와 표준편차가 비교적 낮은 점수에 치우쳐 있었다. 문항들의 적격도는 최고 .73에서 최하 .51에 속하고 있으며,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Table 11에는 척도 10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적격도가 제시되고 있다.

Table 11에서 척도 10에 속하는 6개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평균은 3.54~2.34사이에 속해있고, 표준편차는 1.17~1.03범위에서 비교적 지나치게 편

Table 9. 척도 8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적격도

| 문항 | M | SD | 문항적격도 |
|-----|------|------|-------|
| 8-1 | 2.91 | 1.45 | .72 |
| 8-2 | 1.94 | 1.00 | .65 |
| 8-3 | 2.80 | 1.28 | .65 |
| 8-4 | 3.23 | 1.23 | .57 |
| 8-5 | 2.03 | 1.18 | .56 |
| 8-6 | 2.56 | 1.34 | .48 |
| 8-7 | 2.02 | 1.23 | .56 |

Table 10. 척도 9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적격도

| 문항 | M | SD | 문항적격도 |
|-----|------|------|-------|
| 9-1 | 2.33 | 1.06 | .73 |
| 9-2 | 2.37 | .94 | .65 |
| 9-3 | 3.11 | 1.02 | .68 |
| 9-4 | 1.93 | .91 | .51 |
| 9-5 | 1.54 | .75 | .54 |

Table 11. 척도 10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적격도

| 문항 | M | SD | 문항적격도 |
|------|------|------|-------|
| 10-1 | 3.54 | 1.13 | .68 |
| 10-2 | 3.16 | 1.17 | .61 |
| 10-3 | 2.34 | 1.10 | .55 |
| 10-4 | 3.42 | 1.17 | .56 |
| 10-5 | 2.78 | 1.14 | .50 |
| 10-6 | 2.89 | 1.03 | .55 |

Table 12. 척도 11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적격도

| 문항 | M | SD | 문항적격도 |
|------|------|------|-------|
| 11-1 | 2.45 | .83 | .62 |
| 11-2 | 2.85 | 1.03 | .57 |
| 11-3 | 1.90 | .86 | .63 |
| 11-4 | 2.42 | .88 | .50 |
| 11-5 | 3.24 | 1.08 | .53 |
| 11-6 | 1.97 | .96 | .48 |

차가 크거나 작지 않는 범위에 있다. 문항 적격도는 최고 .68에서 최하 .50까지이며, 문항 적격도는 .30이하는 없었고 모두 양호한 수준에 있었다. Table 12에는 척도 11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적격도가 제시되고 있다.

Table 12에서 척도 11에 속하는 6개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평균은 3번, 6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3.24~2.45사이에 속해있고, 표준편차는 1.08~.83범위에서 비교적 지나치게 편차가 크거나 작지 않는 범위에 있다. 문항 적격도는 최고 .63에서 최하 .48까지이며, 대체로 양호한 수준에 있었다.

고 안

본 연구는 가족진단검사를 제작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한 다음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본 검사는 앞으로 요인분석에서 각 척도별 명명이 이루어지겠지만 현재는 전체 11개 척도로 구성된 검사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본 가족검사의 각 척도별 신뢰도를 알파계수, 반분신뢰도 계수를 근거로 하면 척도 1부터 척도 7까지는 알파계수와 반분신뢰도 계수 .70이상으로 신뢰도 조건이 매우 만족할만한 수준이지만 척도 8부터 척도 11까지는 알파계수와 반분신뢰도 계수가 .70이하로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신뢰도 조건이 만족스럽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척도 9, 10, 11은 신뢰도 계수가 .60이하로서 낮은 수준이므로 충분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각 척도내 문항들의 문항 적격도를 보면 전체 문항들이 전반적으로 문항 적격도의 조건은 충족시키고 있지만 척도 1에서 5, 7, 9, 14번 문항들, 척도 3에서 1, 2, 3, 4, 8번 문항들, 척도 8의 2번 문항, 척도 9의 4, 5번 문항, 척도 11의 3, 6번 문항이 문항 평균치가 편중되고 있어서 문항 내용 검토가 요구되고 있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문항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판단해 볼 때 본 가족진단검사는 표준화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부분적으로 척도별 수정과 척도내 문항들의 추가 선정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척도별로 볼 때 9, 10, 11번 척도에 대한 집중적인 보완 작업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본 연구와 병행하여 이 가족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 내용에 관한 타당도분석이 일차적으로 요인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지적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요인분석을 통한 검사의 구성내용의 타당도 검증과 앞으로의 보완 작업을 통한 신뢰도 검증이 완료된 다음에 표준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아직 요인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9, 10, 11번 척도는 부모-자녀관계 척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척도들의 낮은 신뢰도 결과는 한국 가족관계 가운데 특히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문항들은 부모-자녀관계의 실질적인 특징을 잘 파악한 다음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준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 결과를 고찰함에 있어서 아직 한국 가족의 정신건강이나 정신병리를 평가하고 진단하려는 목적으로 표준화된 가족검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가족검사의 신뢰도 및 문항 분석 결과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록 검사 제작 목적이 동일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한국판 가정환경척도 개발연구¹⁸⁾와 비교해볼 때 가정환경척도의 내적 일관성신뢰도는 .26에서 .65사이였는데 비해 본 가족진단검사의 내적 일관성신뢰도는 .86~.54 범위였고 신뢰도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정된 1~7번 척도까지의 신뢰도 범위는 .86~.74 범위였다. 본 가족진단검사가 한국 가족에 독특한 문항들을 새롭게 만들어 내면서 제작되었던 배경을 고려한다면, 신뢰도가 검증된 외국 가족검사를 번안한 가정환경진단검사 보다 본 가족검사의 신뢰도가 훨씬 높다는 사실은 본 가족진단검사의 신뢰도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한국판 가정환경척도 개발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점으로서 외국에서 제작된 가족검사의 문항을 번안하여 국내에서 사용할 때 신뢰도 저하, 타당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¹⁸⁾.

한편 본 가족진단검사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가족검사들과 비교해본다면 신뢰도가 낮은 수준임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자기-보고 가족검사(Self-Report Family Inventory, Beavers 등 1985)²⁸⁾는 Cronbach 알파

계수가 .78~.84 범위에 있고, 가족환경척도(Family Environment Scale)²⁹⁾는 내적 일관성이 .61~.78 범위이며, 가족평가척도(the Family Assessment Measure)³⁰⁾는 내적 일관성이 .86~.94 범위였으며, 임상평가척도(McMaster Clinical Rating Scl, Epstein 등 1981)³¹⁾는 내적 일관성 계수가 .68~.88 수준이라고 보고되었다³²⁾. 이와같이 다른 가족검사들의 경우 본 진단 검사에 비해 신뢰도 계수가 높은 편이었는데, 그 이유는 검사 제작과정에서 이론적 배경의 차이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신뢰도가 제시된 가족검사들은 본 가족진단검사와는 달리 제작 배경이 되는 가족이론을 갖고 있다. 각 검사들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 본다면 자기-보고가족검사(Self-Report Family Inventory, Beavers 등 1985)와 가족환경척도(Family Environment Scale : FES)는 가족체계론을 배경으로 제작되었고, 가족평가척도(the Family Assessment Measure : FAM)와 McMaster의 임상평가척도(McMaster Clinical Rating Scl, Epstein 등 1981)는 가족의 기능과정이론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특정한 이론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던 이와같은 다른 가족검사들은 검사가 의존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에 따라 체계적으로 문항이 수집될 수 있었던 반면 본 가족진단검사는 특정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가족행동과 가족관계 특징 및 연구자의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내적 일관성이나 검사 척도의 신뢰도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가족검사의 신뢰도는 일부 척도에서 문제가 되고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2/3이상 척도에서는 신뢰도가 양호한 편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보완 작업을 거친다면 본 가족진단검사가 신뢰로운 검사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가족검사의 신뢰도 검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자 표집과정에 대해 살펴 본다면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표집지역이 서울에 한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족진단검사가 사용될 영역은 서울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국 규모의 대단위로 표집되어야 표집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상자 표집상의 문제도 앞으로 수정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본 가족검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펴 본다면 정신장애자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정신장애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해주고 진단해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집 대상에 정신장애자집단도 포함시켜서 본가족진단검사가 정상가족집단과 정신장애가족집단과의 판별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지를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가족진단검사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본 가족검사는 한국 가족에 적절한 검사를 제작하기 위해 문항 선정, 검사의 하위 척도 구성과정에서 가능한 한국 가족의 독특한 요인 및 현실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도를 거쳤다. 둘째 건강하고 이상적인 가족 특징을 포함시키기 위해 건강 가족 정의를 내리고 이에 적합한 문항들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정신장애자 가족과 정상가족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정신장애자를 진단하기 위한 본검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정신장애자 가족과 면담한 내용을 실제 문항 내용에 반영하였다. 넷째 질문지 구성과정에서 심리학자, 사회학자, 정신과 전문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학원학생도 참여함으로써 문항이 일상적인 생활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한국 건강 가족 특징 및 사례 제시를 위한 가족전문가 팀의 토론회, 본연구 자문위원들의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일차적으로는 한국 가족에 적절한 평가 도구를 제작하기 위해, 한국 정상가족의 특징을 이해하고 정신장애자 가족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본 검사의 특징은 앞으로 검증될 본 검사의 타당도를 보증해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예견된다.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가족의 특징을 평가하고 가족의 정신병리 정도를 진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가족진단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한정되었고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대상자는 가족내 주부로 한정되었고 전체 467명이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본 가족검사는 자기-응답식 질문지로서 5점 척도방식이며 11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

1) 본 가족검사 문항 수는 예비검사과정에서는 199개 문항이었으나 문항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거치면서 98개 문항만이 최종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2) 본 가족검사의 각 척도별 신뢰도를 알파계수, 반분신뢰도 계수를 근거로 할 때 척도 1번부터 7번까지는 알파계수, 반분신뢰도 계수가 .70이상으로 신뢰도 조건이 충족되었다.

3) 본 가족검사의 척도 8번부터 척도 11까지는 알파계수, 반분신뢰도 계수가 .70이하로서 신뢰도 조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었다.

4) 문항별로 보면 척도 1의 5, 7, 9, 14번 문항, 척도 3의 1, 2, 3, 4, 8번 문항, 척도 8의 2번 문항, 척도 9의 4, 5번 문항, 척도 11의 3, 6번 문항에 대한 수정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결론: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척도 8, 9, 10, 11번 척도는 앞으로 문항이 추가되고 문항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주었다.

References

1) Burgess EW, Locke HJ : *The family*.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1950 : p3-5

2) Mead G : *The problem of society- how we become selves*. In Boss PG, Larossa R, Schumm WR, Steinmetz SK :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 a contextual approach*. New York, Plenum Press, 1993 : p135-166

3) Ackerman N : *The psychodynamics of family life*. In Bloch S, Hafner J, Harari E, Szmukler GI : *The family in clinical psychiat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p4-46

4) Beavers W : *Healthy, midrange, and severy dysfunctional families*. In Walsh F : *Normal family process*. New York, Guilford Press, 1982 : p45-66

5) Goldstein MJ : *Family factors that antedate the onset of schizophrenia and related disorder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985 ; 319 : 7-18

6) Jackson DD : *Schizophrenia-the nosological nexus*. In *The new Harvard guid to psychiatry*.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 p259-293

7) Litz T : *The intrafamilial environment of the schizophrenic patient*. *Am J Psychiatry* 1957 ; 114 : 241-248

8) Bateson G, Jacson DD, Haley J, Weakland J : *Toward a theory of schizophrenia*. *Behav Sci* 1956 ; 1 : 251-264

9) Campbell TL : *Family's impact on health : A critical review*. *Family System Medicine* 1986 ; 4 : 135-200

10) Vaughn CE, Leff JP : *The influence of family environment*. *Sch Bull* 1976 ; 129 : 125-137

11) Wynne LC, Singer MT : *Thought disorder and family relations of schizophrenia*. *Arch Gen Psychiatry* 1963 ; 9 : 191-206

12) 김양희 : 한국 가족의 갈등연구.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3 : p189-193

13) 민병근 : 한국 문화의 특성이 정신장애에 미치는 영향. *현대의학* 1966 ; 17 : 119-128

14) 이광규 : 변동사회와 한국인의 갈등. 문학예술사, 1985 : p72-92

15) 이근후 : 한국인의 전통적 인간관계와 현대적 인간관계. *도와 인간과학*. 삼일당, 1981 : p103-116

16) 장현섭 : 한국가족관계의 문제. 다산출판사, 1994 : p11-44

17) 전병재 : 현대가족, 무엇이 문제인가? 위기에 선 가족 : 한국 가족의 변화와 전망. 다산출판사, 1994 : p11-44

18) 신유오 · 조수철 : 한국형 가정환경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1995 ; 34 : 1 : 280-290

19) 송지영 : 한국판 부모-자녀결합형태검사 :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1992 ; 31 : 979-989

20) 이선우 · 신유오 · 조수철 : 가정환경과 자기개념과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1995 ; 34 : 4 : 1140-1163

21) 왕석순 : 부부간의 의사소통 불안의식과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22) 김은심 :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부인의 정신, 신체증상 호소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23) 김진희 : 부모-청소년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24) 김경화 :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25) 이윤지 : 부부간의 우애성에 대한 기대와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26) 이문행 : 가족기능성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

- 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27) 윤찬정 : 가족의 기능성과 개인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28) Beavers WR, Hampson RB, Hulgus YF : *Commentary : the Beavers systems approach to family assessment. Family Process* 1985 ; 24 : 398-405
- 29) Moos RH : *Social ecology : multidimensional studies of human and human milieu. In Ariete A (ed) :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New York. Basic Books, 1974 : p3-4 30*
- 30) Steinhauer PD, Santa-Barbara J, Skinner H : *The process model of family functioning. Canadian J Psychiatry* 1984 ; 29 : 77-87
- 31) Epstein NB, Bishop DS : *Problem centered system therapy of the family. In Gurman A, Kniskern D (Eds) :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1981 : p444-482*
- 32) Grotevant HD, Carlson CI : *Family assessment : a guide to method and measures. New York. Guilford Press, 1989 : p278-313*

□ 부 록 □

11개 척도별 문항들의 핵심내용*

- 척도 1 : 1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족들은 감정이 폭발하여 싸우게 된다.
2 나는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3 우리 부부는 늘 사랑한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4 나는 새로 결혼한다면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
5 우리 부부는 애정보다는 의무감에서 함께 살고 있다.
6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야단칠 때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7 우리 가족들은 화가 날 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순다.
8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족 중 누군가는 감정이 불안정해진다.
9 남편은 화가 날 때 폭력을 휘두른다.
10 우리 부부는 아이들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가 많다.
11 우리 부부는 서로 평등한 관계이다.
12 우리 가족들은 화기에애하다.
13 우리 부부는 서로 이야기를 잘 나누지 않는 편이다.
14 우리 가족들은 무엇보다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15 우리 가족들은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 척도 2 : 1 우리 가족들은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먼저 가족과 의논한다.
2 우리 가족들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 놓는다.
3 우리 가족은 장래를 위해서 의논하거나 계획한다.
4 나는 아이들과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5 나는 아이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6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친다.
7 우리 가족들은 함께 책임을 나눈다.
8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9 도덕 교육은 학교의 책임이므로 집에서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10 우리 가족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11 우리 가족들은 어려운 경우를 당했을 때 서로 힘이 되어 준다.
12 우리 가족은 예산에 맞추어 돈을 규모있게 쓴다.
13 우리 가족은 누구든지 집안에서 정한 규율을 지켜야 한다.
14 아이들이 싫어지고 귀찮아질 때가 종종 있다.
- 척도 3 : 1 시어머니는 나를 자주 야단치신다.
2 시어머니는 우리 가정 일에 일일이 간섭하신다.
3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흉을 자주 보신다.
4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에게 잘 대접받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신다.
5 나는 시어머니에게 겉으로만 복종하는 척 하는 경우가 많다.
6 시어머니는 결혼한 아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한다.
7 나는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처럼 편하다.
8 남편은 내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시어머니 편만 든다.
9 시어머니와 나는 서로 이해하고 돕는다.
10 시어머니는 나의 남편을 어린애처럼 돌봐주고 싶어하신다.

- 척도 4 : 1 남편은 아이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2 우리 부부는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함께 지낼 시간이 거의 없다.
 3 우리 가족들은 각자 방에 들어앉아 혼자 지내는 일이 많다.
 4 우리 가족들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일이 드물다.
 5 우리 가족들은 서로 대화를 많이 한다.
 6 남편은 아이들과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7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웃는 경우는 드물다.
 8 우리 가족들은 서로 어디에 있는지, 집에 언제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다.

- 척도 5 : 1 우리 부부는 성생활에 대해 서로 만족감을 느낀다.
 2 나는 남편과 성관계를 가질 때 쉽게 반응하지 못한다.
 3 우리 부부는 성관계를 통하여 일체감을 느낀다.
 4 나는 성관계에 대해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다.
 5 남편은 성관계를 가질 때 여유가 없고 조급하다.
 6 내가 먼저 남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다.
 7 우리 부부는 여러 형태의 성행위를 한다.

- 척도 6 : 1 우리 가족들은 사회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2 우리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3 우리 가족들은 이웃과 자주 도움을 주고 받는다.
 4 우리 가족들은 서로 가까운 친구들을 잘 알고 있다.
 5 우리 가족은 집안 일을 서로 분담해서 한다.
 6 우리 가족들은 친척들의 대소사에 빠짐없이 참여한다.
 7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족들은 여러가지 해결방법을 찾아본다.
 8 우리 가족들은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9 아이들이 자신의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하도록 가르친다.
 10 우리 가족들은 영화나 음악회, 여행 등을 자주 즐긴다.

- 척도 7 : 1 우리는 친정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돌봐드리고 있다.
 2 우리는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다.
 3 우리는 친정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다.
 4 우리는 시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돌봐드리고 있다.

- 척도 8 : 1 남편은 빨래나 부엌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2 우리 가족은 남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3 남편은 자신이 부당하게 행동하더라도 내가 참기를 바란다.
 4 우리 가족은 남편과 아내가 할 일이 구별되어 있다.
 5 우리 집안의 경제권(돈의 용도 결정 및 사용권)은 남편에게 있다.
 6 남편은 아내가 직업을 갖고 사회활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7 남편은 명절날 시댁에만 가고 친정에 가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 척도 9 : 1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면 그대로 들어줄 때가 많다.
 2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주장하면 대부분 아이들 주장대로 따라 간다.
 3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들어준다.
 4 우리 부부는 기분이 좋으면 아이들이 잘못 해도 야단치지 않는다.
 5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내버려둔다.

- 척도 10 : 1 아이들은 내 인생의 거의 전부일만큼 중요하다.

- 2 나는 우리집 아이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가까이서 돌봐주고 싶다.
- 3 나는 우리집 아이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를 직접 골라줄 생각이다.
- 4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 5 우리집 아이들은 아버지 말보다는 어머니 말을 잘 듣는다.
- 6 우리 부부에게는 부부간 애정보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

척도 11 : 1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 2 우리 부부는 아이들의 행동을 일일이 지시해준다.
- 3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거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 4 우리 가족들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하다.
- 5 우리집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몹시 화가 난다.
- 6 아이들에게 공부외에는 다른 일을 전혀 시키지 않는다.

*본 가족진단검사는 앞으로 요인구조분석 및 문항내용 재검토, 문항재구성을 통하여 문항들이 추가되고 수정될 예정이므로 현재의 질문 내용은 완전한 진단검사구성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